

茶山の 社會批判詩에 對한 考察

成 鎬 周

- 一. 緒 言
- 二. 茶山思想의 基底
- 三. 茶山詩論의 中心概念
- 四. 當時의 社會相 茶山の 詩世界
 1. 農漁村의 貧困相
 2. 官吏의 橫暴收奪相
 3. 制度의 矛盾相
 4. 世態의 墮落相
- 五. 結 言

一. 緒 言

丁茶山 若鏞은 英祖 38年(1762) 음력 6월 16일에 廣州府 마재(馬駘)에서 南人 學者 丁載遠의 네째 아들로 태어나서 天性이 어질고 聰明하여 7세부터 글을 잘 짓고, 15세에부터 南人 學者 李瀛의 學風을 이어받아 實學을 研究하고, 22세 때에는 小科에 及弟하여 成均館에서 글을 닦다가 그 妹夫 李承薰의 感化로 天主教를 믿게 되고, 28세 때에는 大科에 及弟하여 奎章閣에서 많은 책을 편찬했다.

때마침 어진 임금 正祖가 水原城을 쌓으매 茶山은 西洋의 起重機法을 써서 나랏돈 四萬兩을 節約하고 마마병(天然痘)을 예방하는 牛痘法을 施行하여 醫術로도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正祖가 1800년에 下世하고 天主教 大迫害가 일어나매 茶山도 全羅道 康津으로 귀양가 18年 동안 살다가 故鄕으로 돌아와 1836年 2月 22日 75歲로 別世했다.

茶山은 귀양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政治 經濟등의 改革을 主張한 牧民心書, 經世遺表를 비롯하여 508卷의 책을 지어냄으로써 實學의 最高峰이 되어 後世에 많은 教訓을 남겼다.

이 글은 서울 南山에 建立된 丁茶山 先生 銅像 背面에 세겨져 있는 것

으로 茶山의 生涯와 學問을 가장 잘 壓縮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에 걸쳐 오직 愛國爲民의 一念으로 當時 명든 朝鮮社會와 거의 救濟不能 상태로까지 疲弊한 政治, 經濟, 現實을 直視 批判하고 그 匡救策을 龍대한 著述로 洩력한 偉대한 愛國者로서 한편 實學思想의 最高峰으로 推仰되는 분이다.

茶山의 平生 75年間, 그 중에서도 康津 流配生活 18年間に 이룩한 五百餘卷의 著述은 漢字가 생긴 以來 가장 龍대한 量(鄭寅普先生 말)이고, 그 중에는 約 2500首에 互하는 詩文이 그의 獨步인 文學論과 함께 間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茶山은 近世史에 있어서 偉대한 思想家, 經世家로서의 比重이 너무 컸기 때문에, 文學家나 詩人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浮刻되지 못했던 것 같다.¹⁾

그러다가 最近에 와서, 實學思想 研究붐을 타고, 한편으로는 文學의 社會參與 問題(양가주망 文學論), 韓國 近代文學의 起點 問題, 市民意識과 民族文學論 是非 등과 관련하여 茶山文學을 注目하게 되었고, 게따라 여러 側面에서 活潑한 研究成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²⁾

本篇은 茶山文學의 가장 顯著한 特色이라 할 수 있는 冷靜하고도 嚴正한 現實批判詩를 中心으로, 그런 參與詩를 生産하게 한 社會史의 背景과 함께 그의 思想的 基底와 文學觀을 살펴서 茶山文學이 占하는 國文學史의 意義와 價値를 筆者 나름대로 照明 整理해 볼까하는 것이다.

二. 茶山思想의 基底

龍대하고도 深奧한 茶山思想을 간단히 要約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지만 굳이 一言으로 蔽之한다면 「爲民愛國」으로 나타낼 수 있

1) 지금까지 몇 분이 낸 (韓)國文學史에 별로言及이 없고, 李秉坡, 文旋奎 등 諸氏의 韓國漢文學史에도 다루지 않았다.

2) 茶山을 文學的인 面에서 學論하게 된 것은 洪以燮 교수(1950)로부터 비롯되고, 그 뒤에 金智勇, 李家源, 宋載邵, 趙東一, 崔信浩, 金興圭 등 諸氏의 論及이 있었다.

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著書 도처에 자주 보이는 ‘下不害民 上不損國’, ‘厚民生而裕國用’, ‘生民之福 國家之利’ 등의 用語가 이를 端的으로 證明한다 할 것이다.

그의 腦裡 속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이 「백성」과 「나라」의 現實은 그의 눈에 어떻게 비쳤던가? ‘天下腐已久’요 ‘生民之塗炭 豈若是之甚乎’로 慨嘆不禁할 狀態요, 터럭 하나도 병들지 않은 곳이라고는 없는(蓋一丘一髮 無非病耳) 막다른 골목에서 당장 大手術을 加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亡하고 만다.³⁾는 確信 위에 나라를 새롭게 革新시킬 수(新我之舊邦) 있는 方策으로 提起한, 다음과 같은 創意的인 論理는, 오늘날 眼目으로 보아도 놀라운 바가 많거니와, 閉鎖的 封建王朝라는 時代的 制約과 體制 속의 人物이라는 身分의 限界를 고려할 때, 참으로 革命的 爆彈宣言이었고 時代를 앞서간 先覺者 愛國者였음을 感知하게 된다.

첫째, 茶山은 封建搾取階級의 理論的 基盤인 性理學을 批判하고 나아가서는 詁訓之學, 文章之學, 科擧之學, 術數之學까지도 痛烈히 비난하여 生民富國에 一毫도 無用한 非生産的 學問을 止揚할 것을 主張하였고, (五學論 참조)

둘째, 東洋의 傳統的 君主制度를 새로운 歷史解釋의 뒷받침으로 뒤엎고 不德한 帝王이나 君主는 언제라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政治革命의 妥當性을 論理井然하게 展開하였다. (場論 참조)

셋째, 永遠不易의 眞理처럼 통용되던 王權天授說을 뒤엎고, 民意에⁴⁾의한 國家社會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政治觀과 主權在民의 原則에 가까운 民主思想으로 추락한 民權回復의 必要性을 力說했으며, (原收 참조)

넷째, 非科學的 迷信 및 神秘主義의 暗黑을 제거한 目的으로 術數, 占卜, 風水地理說 등의 惑世誣民의 虛構性을 說得力 있게 폭로하였다. (甲乙論 易論 風水論 相論 脈論 등 참조)

다섯째, 茶山의 代表著述이나 할 수 있는 一表二書(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등에서는 貪官汚吏들에게 지달린 백성의 苦痛과 三政紊亂 등

3) 經世遺表 序「…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 斯豈忠臣志士 所能袖手而傍觀者哉…」

制度的 타락과 富의 不均衡에서 온 貧困 및 刑獄의 不合理에서 온 人間苦의 根本의 解決로 貧困과 刑獄으로부터의 人間解放을 부르짖었다.

이와 같은 그의 主張과 對策은 當時 腐敗封建社會의 末廢를 正確히 診斷하였고, 또 그에 대한 適正한 處方箋으로서 비록 그의 著述이 當時에 印行廣布되지는 않았지만 一部 良心的 知識人 사이에 手寫 傳播됨으로써 많은 共鳴 同調者를 얻을 수 있었고⁴⁾ 그 후 主로 湖南地方에서 主導된 民亂과 東學農民革命의 刺戟劑 내지는 起爆劑가 됨으로써 封建王朝의 崩壞를 促進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런 見地에서 日人 學者 淺見倫太郎이 그의 「朝鮮法制史稿」에서

半島에 있어 李朝 最後의 學者로서 丁若鏞을 지닌 것은 表彰할 만하다.
 …李朝末에 확실히 한 사람의 丁若鏞을 낸 것은 半島의 幸福이었고, 王國의 不幸이었다.

고 말한 것은 어지간히 正鵠을 찌른 發言이라 생각된다.

三. 茶山詩論의 中心概念

茶山の 文學觀이나 詩論도 그의 一貫된 思想的 基底와 無關할 수 없다. 即 愛民爲國의 根本精神에서 逸脫된 文學이나 詩는, 오히려 우리의 바람직한 道路에 큰 害가 된다고 前提했다.

‘文章之學 吾道之鉅害也’⁵⁾

라 하여, 內容이 없이 表現만을 重視하는 文學을 排擊하여 나약하고 미세한 말을 늘어놓거나 음란하고 간사한 감정을 자극하는 문학은 기어이 물리쳐야 할 人間의 큰 災殃이라고 갈파했다.⁶⁾

4) 黃玿: 梅泉野錄 卷一, 上, p. 32. 「茶山所著 一未刊布而私相鈔寫單種各行… 論議異趣之家 無不珍藏」

5)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11, 五學論 三, (景印文化社刊, p. 232)

6) 文體策: (前揭書, p. 167) 「…稗官雜書 是人災之大者也 淫詞醜話 貽蕩人之心 靈 邪情魅跡 迷惑人之智識 荒誕怪詭之談 以騁人之驕氣 靡曼破碎之章 以消人之壯氣…」

그리고 詩精神은 詩經 三百篇을 규범으로 삼되, 杜甫의 詩風을 正宗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후세의 시들은 마땅히 杜甫를 孔子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대체로 杜甫의 詩가 모든 詩人들의 詩보다도 으뜸인 점은, 詩經 三百篇의 思想을 잘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三百篇은 모두가 忠臣 孝子 烈婦 親友들의 惻怛忠厚한 思想의 表現이다.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詩가 아니며, 어지러운 時局을 아파하여 頹廢한 習俗을 痛憤히 여기지 않은 것은 詩가 아니며, 眞實을 讚美하고 虛僞를 諷刺하며 善을 권하고 惡을 징계하는 사상이 없으면 詩가 아니다. 그러므로 意志가 確立되지 못하고 學識이 醇正하지 못하며 道를 알지 못하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百姓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者는 詩를 지을 수 없다.

「…後世詩律 當以杜工部爲孔子 蓋其詩之所以冠冕百家者 以得三百篇遺意也 三百篇者 皆忠臣孝子烈婦良友惻怛忠厚之發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故志不立 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⁷⁾

라 하여, 茶山 自身이 杜甫의 代表的 社會詩 三吏(石壕吏, 新安吏, 潼關吏)에 次韻한 龍山吏, 波池吏, 海南吏를 지었고 다시 杜甫의 三別(新婚別, 垂老別, 無家別)과 같은 不遇別, 沙坪別 등을 남기기도 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무릇 詩의 根本은 父子, 君臣, 夫婦의 윤리에 있다. 그 즐거운 뜻을 宣揚하기도 하고 그 怨望하고 思慕하는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는 世上을 근심하고 百姓을 가엾게 여겨야 한다. 언제나 無力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측은하게 彷徨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려는 뜻을 가져야 비로소 詩이다. 自己의 利害만 생각하는 것은 詩가 아니다.

「…凡詩之本 在於父子君臣夫婦之倫 或宣揚其樂意 或導達其怨慕 其次憂世恤民 常欲拯無力 欲賑無財 彷徨惻傷 不忍遽捨之意 然後方是詩也 只管自

7) 寄淵兒：(前揭書, p. 443)

己利害 便不是詩」⁸⁾

라고도 하였는데, 이를 要約하면

첫째, 詩人이 自己 利害만 생각하고, 自己의 個人的인 感興만 노래 한 것은 올바른 詩가 아니라 하여, 文學이 主觀的인 것만 아니라는 뜻을 드러내었고, 둘째, 詩는 倫理的 主題를 지니고 現實問題를 다루면서 특히 가난하고 無力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強調했다.

그리고 律格이나 表現에 있어서는, 古風에 매일 필요없이, 自身의 感興과 뜻을 나타내는데 主力함으로써 朝鮮人은 朝鮮詩를 써야 한다는⁹⁾ 主体意識을 드러내기도 했다.

結局, 그는 文學이나 詩가 우리의 當面現實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改造하는 데 寄與하는 것을 機能으로 삼아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文學의 社會參與論을 確固히 다졌다고 볼 수 있다.

四. 當時의 社會相과 茶山의 詩世界

茶山이 7歲부터 75歲까지 지은 2463首의 詩 중에는 一般 讀書官人들의 詩世界와 같이 自然風光과 花朝月夕을 賞玩하고 人生無常이나 懷古와 感傷을 노래한 詩도 없는 바 아니나, 茶山詩의 眞面目은 當時의 社會矛盾과 貪官汚吏들의 收奪과 橫暴를 告發暴露하고, 無力하고 가난한 百姓쪽에 서서 그들을 同情하고 그 非理의 革新正을 부르짖은 社會批判詩, 告發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茶山詩의 가장 두드러진 主題는, 農漁村의 貧困相, 百姓의 苦惱相, 鄉吏 土豪의 橫暴 收奪相, 社會制度의 矛盾相, 疲弊한 祖國現況 등이며, 善

8) 示兩兒：(前揭書, p. 447)

9) 人一快事六首效香山體, (前揭書, p. 115) 其五, 六

‘…縱筆寫狂詞 競病不必拘 推轂不必運 興到即運意 意到即寫之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 宋載邵：茶山の「朝鮮詩」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제2집, pp. 95~103
참조

良한 百姓과 奸惡한 官吏와의 葛藤을, 병아리와 독수리, 소나무와 송충이 사람과 모기 또는 이리와 호랑이 등의 對立으로 allegory化 하여 읊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¹⁰⁾

1. 農漁村의 貧困相

우리나라 農漁業이 元來 零細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지만, 田賦 軍政 還穀 등 三政의 紊亂과 奸惡한 官吏의 收奪이 加重됨으로써 農漁村의 荒廢 貧困相은 可謂 目不忍見의 悲劇 그 것이었다. 茶山은 33歲때에 京畿道 暗行御史가 되어 이런 慘狀을 直接 目睹하고 哀憐과 忿怒의 눈초리로 살살이 廉察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奉旨廉察到積城村合作¹¹⁾

시냇가 헌집 한 채 목재가 갈구나.
 복중에 이엉 걸쳐 서까래단 앙상하네.
 목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디차고
 좁어진 벽틈으로 별빛이 비쳐 드네.
 방안은 쓸쓸하여 가진거란 거의없고
 모조리 다 팔아도 칠 팔 돈이 안되겠네.
 개꼬리같은 산조 이사 세 줄기(와)
 타 창자 같이 비틀어진 고추 한 개미
 깨어진 항아리는 형겅으로 깨었고,
 찌그러진 선반대는 새끼줄로 엮었도다.
 구리 수저 벌써부터 이적한테 빼앗기고
 무쇠술은 열집 부자 빚돈 대신 가져갔네.
 검푸른 무명 이불 오직 한개뿐이려니
 「부부유별」이란 말은 애당초 당치 않네.
 어린 것은 옷을 입혀 어깨가 나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 버선 걸쳐 보지 못하였네.
 큰 아이 다섯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10) 宋載邵: 茶山詩의 對立의 構造, 창작과 비평, 1978 봄, p.335~354 참조.

11) 與猶堂全書: 前揭書, p.27.

새살 난 작은 놈도 군적에 적혀 있다.
 두 아들 군포세로 오백돈을 물고나니
 제발 죽기 바라는데 옷이 다 무엇이라.
 아이와 강아지가 한 방 안에 잠자는데
 호랑이는 밤만 되면 울밖에서 으르렁 낸다.
 남편은 나무하고 아내는 방아품팔고
 대낮에도 사립 달아 그 모습 참담하다.
 점심 굶고 저녁 굶고 밤에서 밥을 한다.
 여름에는 숨누더기, 겨울에는 삼베옷.
 들냉이나 캐려 해도 땅이 아직 녹지 않고
 이웃집 술 거르면 술찌꺼기나 얻어 먹자.
 지난 봄에 꾸어먹은 환자가 닷말인데
 금년에도 이 짓하고 무슨 수로 산단 말가.
 무섭고 험상궂은 나졸놈들 또 올레라.
 관가 곤장 맞는 일이 이제는 두렵잖다.
 어허, 이런 잡들이 온 천하에 가득한데
 구중 궁궐 깊고 멀어 살피지도 못하누나.
 한 나라 옛 제도엔 직지사자 파견하여
 이천석 판리라도 죽결처분 내렸거든
 폐단과 어지러운 뿌리채 못 뽑으면
 공황이 다시 온들 누가 다시 구해주리.
 정험의 유민도를 넘지시 못내 잊어
 이 시 한편 그려내어 임에게 드리과저.

「臨溪破屋如蓬鉢	北風捲茅攢齷齪	舊灰和雪甕口冷	壞壁透星篩眼豁
室中所有太蕭條	變賣不抵錢七八	龍尾三條山栗瀝	鷄心一串番椒辣
破甕布衫數穿漏	皮架索縛防墜脫	銅匙舊遭里正攘	鐵鍋新被鄰家牽
青綿敝衾只一領	夫婦有別論非達	兒僮穿襦露肘肩	生來不著袴與襪
大兒五歲騎兵簽	小兒三歲軍官括	兩兒歲貢錢五百	願渠速死況衣褐
狗生三子兒共宿	豹虎夜夜籬邊喝	郎去山樵婦備春	白晝掩門氣慘怛
晝闕再食夜還炊	夏每一裘冬必葛	野薺苗沈待地融	村葛糲出須酒醎
餉米前春食五斗	此事今年定未活	只怕邏卒到門扉	不愁縣閭受苦撻
嗚呼此屋滿天地	九重如海那盡察	直指使者漢時官	吏二千石專黜殺
樊源亂本勢未正	蠱黃復起難自拔	遠羣鄭俠流民圖	聊寫新詩歸紫闥」

좀 장황함을 느끼면서도 이 詩 全篇을 다 引擧한 것은 改革되지 않으면 안될 當時 農村의 實情이 茶山의 눈에 어떻게 反映되었으며, 封建의 抑壓 속에서 呻吟하는 農民들의 慘狀이 그에 의해 어떻게 藝術的으로 形像化되었는가를 綜合的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이다. 이 詩는 京畿道 積城村이란 어떤 特定한 貧民家戶를 描寫한 것이 아니라 ‘嗚呼此屋滿天地 九重如海那 盡察’이라 읊고 있듯이 當時 우리나라 到處에서 볼 수 있는 한 典型的인 農家를 그린 것이다. 이 詩를 通해 볼 때, 茶山의 現實을 直視한 눈초리도 매섭거니와 相當히 稀貴한 僻字까지 끌고와, 한 農家의 懷絶한 모습을 精密한 具象畫家가 그림을 그리듯이 리얼하게 描寫하고 있는 솜씨도 驚歎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內容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가난은 타고난 宿命이기도 하지만 賦稅의 不合理와 鄉吏土豪의 苛歛誅求가 複合하여 雪上加霜으로 苦痛 받는 百姓에 대한 作者의 憐憫어린 視線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貧困相은 農村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고 漁村, 鑛山村에도 다를바가 없다. 다음은 作者 19歲때에 본 한 漁村을 그린 作品이다.

暮次光陽¹²⁾

작은 마을 산 기슭에 기대어 있고
허물어진 城 하나 바닷가에 서 있네.
흙비 내려 나무들은 우중충하고
비 머금은 섬 구름만 드높이 뿔네.
장터엔 까막까지 요란스레 날아들고
다리 아래 조개 소라 침침이 쌓였네.
요즈음 漁稅가 너무 무거워
사는 것이 날마다 서글프기만.

「小聚依山坂 荒城逼海潮 漲羅官樹暗 含雨島雲驕
鳥鵲爭虛市 塵螺壘小橋 邇來魚稅重 生理日蕭條」

12) 前掲書, p. 6

꿈이 많고 多感한 青年期에 있어서 閑寂한 山 기슭의 漁村風景은 어찌
면 보는 側面에 따라 牧歌的이고 浪漫的일 수도 있었으련만,
그런 感興은 일지 않고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 속에 税金에 짓눌린 漁民
들의 서글픈 生活感情으로만 關心이 쏠리고 있다. 이런 點으로 볼 때, 不
遇한 이웃에 대한 憐憫과 同情은 이 作家에 있어 타고난 生理와도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

人生의 슬픔 가운데, 굶주림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이다. 다음 「飢民
詩」는 前引 두 首의 詩보다 悽慘의 度가 훨씬 짙은 것이다.

飢民詩¹³⁾

.....
다른 목은 꾸부러져 따오기 모양이요
병든 살갗 주름져 닭살 같구나
우물은 있다마는 새벽물 건지 않고
펠감도 있다마는 저녁밥 짓지 못해
사지는 아직도 움직일 때이런만
걸음걸이 혼자서 옮길 수 없네
해저문 넓은 물에 부는 바람 서글픈데
슬피 우는 저 기럭기 어디메로 날아가나
.....

슬피 울며 고을 문 나서고 보니
더지럽고 캄캄하더 갈길이 안 보이네
누런 풀 언덕 위에 잠시 발 멈추어서
무릎을 펴고 앉아 우는 애 탈때면서
머리 숙여 벼목 이 잡고 있으면
두 줄기 눈물이 비오듯 하네
.....

「稿頌振鵠形 病肉縞鷄皮 有井不晨汲 有薪不夜炊
四肢雖得運 行步不自持 曠野多悲風 哀鴻舊何之
.....
哀號出縣門 眩旋迷路歧 暫就黃莎岸 舒膝挽啼兒
低頭捕蟣蝨 茫然双淚垂」

13) 前掲書, p. 27.

이와 같은 飢民의 生生한 묘사는 멀리서 傍觀하는 者의 눈과 마음으로
 는 그려낼 수 없는 경지이다. 굶주리는 民衆의 배고픔을 自身의 배고픔으
 로 느낄 수 있는 詩人만이 創造해 낼 수 있는 유니크한 感動인 것이다.

2. 官吏의 橫暴 收奪相

茶山이 살았던 18, 19세기는 封建王朝의 末期의 弊弊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난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全般的 官紀의 紊亂에 따른 地方官의 橫暴
 와 貪虐은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茶
 山은 當時의 上濁 下不淨한 官紀의 肅正과 制度의 補完을 論한「監司論」
 「奸吏論」, 「鄉吏論」 등의 時務策을 내놓기도 하고, 바람직한 牧民官의 現
 場教範으로 牧民心書란 力著를 펴내는 한편, 그의 熱火같은 破邪顯正의
 정열과 愛民爲國의 衷情은 그들 奸吏의 非理와 收奪相을 一一이 告發暴露
 하여 리얼한 社會詩로 훌륭히 形像化하고 있다. 그런 代表的인 佳篇은 蟲
 食松「憎蚊」「僧拔松行」「經奴行」, 「豺狼」 「黃漆」과 杜甫의 三吏에 次韻
 한「龍山吏」, 「波池吏」, 「海南吏」 등 수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저 禮記에
 나오는 中國故事「苛政猛於虎」를 實話로 다룬 詩「獵虎行」一篇만 들어
 보겠다.

오월이라 깊은 산속 숲 깊어 어두운데
 호랑이 새끼쳐서 젖먹여 키우더니
 여우 토끼 다 잡다가 사람까지 해치려고
 깊은 동굴 벗어나서 마을 뒷산에 어슬렁거리며
 나무하는 초부들 나물캐는 아낙네들
 도롱 샷샷 농부들도 종적이 끊어지고
 산골 백성 한낮에도 문 닫속 심하구나
 흩어미는 슬피울며 칼 들고 내달으며
 장정들은 분에 차서 활을 메고 나선다
 고을 원님 이말 듣고 측은히 생각딘지
 사령 군노 신칙하여 호랑이 사냥 명령하네

원님 앞서 사령오니 온 마을이. 깜짝 놀라
 도리어 질겁하여 장정들은 도망 가고
 늙은이는 할수없이 포로처럼 붙들린다
 기세높은 군노들이 집집마다 싸다니며
 나팔 불고 피리 불며 어지러이 구는구나
 쇠암탑 잡아내고 돼지 잡아 요리하고 온 마을이 소란하다
 방아 찧어 쌀밥 짓고 초식 갈아 대접하기 동네사람 뉘을 잃네
 취토록 술 마시며 긴 담뱃배 피워물고
 사령 군노 패를 지어 복치며 뽕 잡는다
 이정은 앞장 서고 마름은 뒤따르며 호랑이 사냥 하는데
 주벽이 날아들고 발길로 걸터차서
 붉은 피 토하면서 호랑이 쓰러지네
 반절 있는 호피 한 장 고을 문에 내걸리니 손벽치며 좋아라네
 돈 한푼 안 들고 값진 물건 얻었다네
 당초에 어떤 자가 호랑이 났다 알렸느냐
 입 빠른 것이 잘못이라 원성 들어 마땅하네
 호랑이의 피해일랑 한 두 사람 상하는데
 어이하여 이 고통을 반단 말고
 흉농 고을 호랑이는 강을 건너 갔던 일과
 태산 여자 울음소리 그대 듣지 못했더냐
 옛날에는 나라사냥 패를 가려 하였나니
 여름 달 농사철은 사냥할 때 아닐러라
 가증스런 관리들은 밤중에도 문 두드리니
 차라리 남은 호랑이를
 문간에 세워두고 오는 관리 막으리라

「五月山深暗艸莽	於菟殺子須漣乳	已空狐兎行搏人	離棄窟穴橫村塢
樵蘇路絕蕪蓑停	山偃白日深閉戶	嫠婦悲啼思割股	勇夫發憤謀張弩
縣官聞之心惻然	敕發小校催獵虎	前驅鑿出一村驚	丁男走藏翁被虜
小校臨門氣如虹	嚙囉亂梏紛似雨	烹鷄殺猪喧四鄰	春糧設席走百堵
討醉爭傾象鼻灣	聚軍雜聽鷄婁鼓	里正縛頭田正路	拳飛踢落朱血吐
斑皮入縣官啓齒	不費一錢眞善賈	原初虎害誰入告	巧舌喋喋受衆怒
猛虎傷人只一二	豈必千百罹此苦	弘農渡河郕得聞	泰山哭子君未覩
先王蒐獮各有時	夏月安苗非習武	生憎悍吏夜打門	願留餘虎以禦侮」 ¹⁴⁾

猛虎의 民家出現을 官에 申告했다가 그 호랑이의 被害보다 몇 十倍나 더 苦痛을 받게 되자, 차라리 앞으로는 호랑이를 그대로 남겨 두어, 호랑이보다 무서운 悍吏의 횡포를 막기를 바라는 막한 民意를 잘 代辯하고 있다. 참으로 거짓말 같은 참말이다. 茶山은 이러한 現實이 虛構가 아니란 것을 다른 紀事文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過重한 税金을 못내게 되면 이웃이나 一家親戚까지 共同責任을 지워, 그 家産을 닥치는 대로 沒收해 가마침내 한 마을을 廢村으로 만드는 참상을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微鄰微里徵族徵姻 搜房掘地 懸首縛臂 摘其鎬釜 攘其犢豚 一村蹶然哭聲震天 傷天地之和氣 慘人烟之蕭瑟 此行所過 十室九空 崩檐敗壁 牕戶欹傾¹⁵⁾

이 밖에도, 「黃漆」은 아전의 횡포착취가 너무 심해서, 횡옷칠을 채취하는 옷나무를 그 村民들이 밤중에 몰래 도끼로 찍어버리는 내용이고, 「豺狼」은 殺人事件을 핑계로 한 마을을 討索籍沒하는 官吏를 송냥이와 이리에 비유한 詩며, 「狸奴行」은 쥐잡으라고 키운 고양이와 쥐한테 괴물 받아먹고 제 本分을 잊어버리고 더 큰 도적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의 「監司論」에서 가장 큰 도적을 監司라고 갈파했던 主張을 詩化한 것이다.

3. 制度의 矛盾相

當時 茶山의 눈에 비친 여러가지 制度의 矛盾相은 一一히 다 舉論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중에서도 三政(田賦, 軍政, 還穀)의 不合理와 身分制度의 桎梏을 革正할 것을 集中的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論文으로서 田論「身布議」「還上論」등과 「庶孽論」「通塞議」등을 발표했고 詩로서 그 矛盾相을 生生히 形像化하여, 그 改善이 時急焦眉함을 感動的으로 佔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軍政의 문란으로 소위 ‘黃口籤丁’과 ‘白骨徵布’에 시달린 百

15) 與齋堂全書, 經世遺表 卷一, <地官戶曹> 조

姓이 모든 것이 아이 낳은 罪라 하여, 자신의 男根(生殖器)을 잘라버리는
極限의 自虐相을 그린 「哀絶陽」一篇을 들어 보기로 하자.

던지 이 詩를 쓰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此嘉慶癸亥秋 余在康津作也 時蘆田民有兒生三日 入於軍保 里正索牛
民拔刀自割其陽莖 曰我以此物之故 受此困厄 其妻持其莖 詣官門 血猶
淋漓 且哭且訴 聞者拒之 余聞而作此詩¹⁶⁾

哀 絶 陽¹⁷⁾

갈발 따를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타
고을 끝 내달다가 하늘 보고 통곡하네
남편 군인 종발은 오히려 있으련만
자고로 男絶陽¹⁸⁾은 들어 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삼년상은 끝난지 오래 되고
갓난 아이 배안 물도 마르기 전에
삼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내달아 호소하 도려해도 완가 묻지기 호랑이 같애
이정이 호통하여 난벌 소 끝까지네
그는 문득 칼을 갈아 방안에 댈척드니
선혈이 자리에 낭자하구나
애달프다, 애 낳은 죄 때문에 이 화난을 당했다고
蜚語 음형도 억울한 일이고
閹圉 去勢도 애처로운 일이거든
나고 사는 법칙은 자연의 이치이고
아들 딸 낳는 건 사람 사는 도릴텐데
소 되지 불알 감도 오히려 가없거든
하물며 후손 이름 사람에 있어서랴
부자들은 평생내내 풍악이나 즐기고
한 달걀, 한죄 배도 바치는 일 없구나
모두 같은 한 나라의 백성이건만

16) 牧民心書, 第26卿, 第8章. <簽丁>

17) 與病堂全書一, p. 76.

18) 남자가 자지를 자르는 일

어찌 이리 후박이 고르지 못하던고
시름겨워 객창에서 鳩鳩篇을 읊노라.

「蘆田少婦哭聲長 哭向彫門號穹蒼 夫征不復尙可有 自古未聞男絕陽
男喪已結兒未澡 三代名簽在軍保 薄言往愬虎守閭 里正咆哮牛去阜
磨刀入房血滿席 自恨生兒遭窘厄 蠶室淫刑豈有幸 閭閻去勢良亦忒
生生之理天所予 乾道成男坤道女 驢馬獷豕猶云悲 況乃生民思繼序
豪家終歲奏管弦 粒米寸帛無所捐 均吾赤子何厚薄 客窓重頌鳩鳩篇」

生生之理는 하늘이 준 것이고, 法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天理를 어기는 이런 惡法이 고쳐지지 않으면 백성들은 모두 죽고 말 것(此法不改而民盡劉矣)이라고 茶山은 慨歎해 마지 않았다.

다음에는 똑 같은 이 나라 百姓을 身分의 桎梏으로 묶어 天刑과도 같은 差別待遇를 함은 不當하다는 主張이니, 茶山은 말하기를

나라에 人材가 부족한 지 실로 오래였습니다. 全國의 人材를 모조리 선발하여 登用한다 해도 오히려 不足한 형편인데 그 중 열에 아홉은 버리고 있습니다.

「臣伏惟人材之難得也久矣 盡一國之精英而拔擢之 猶懼不足 況棄其八九哉」¹⁹⁾

고 朝廷에 建議하여 班常의 벽을 蠲하고 職業(土, 農, 工, 商)이나 地方色 및 嫡庶의 差別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런 팔시와 친대는 國民總和를 해치는 主要한 原因으로 나라가 危機에 처할 때, 그 冤抑한 百姓들은 나라가 빨리 亡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袖手傍觀하게 된다는 것을 實例로써 노래하고 있다.

서도민(西道民)들 오랫동안 억눌려 지내
十世토록 벼슬길 막혀 버렸네
길으로는 공손한 체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사무친 원한

19) 全書 I, p.186 <遙塞識>

지난번 왜놈들 쳐들어 올 때
 의병들 곳곳에서 일어났건만
 서도민만 팔짱 끼고 방관한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까닭 있었지.

「西民久掩抑 十世閔簪紳 外貌雖愿恭 腹中常輪囷
 漆齒昔食國 義兵起蹉跎 西民獨袖手 得反諒有因」²⁰⁾

4. 世態의 墮落相

茶山이 보는 眼目으로는 治民의 綱領인 國法 자체가 不合理한데다가 그 運用者인 官吏가 奸惡하여 百姓을 收奪하고 虐待하니 가난과 苦楚에 시달린 百姓인들 어찌 恒心으로 淳俗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茶山은 우리나라 사람의 主體意識의 喪失과 까닭없는 모방과 效顰을 꼬집고 있다.

“남 섬겨 흉내내기 급급하다가
 제 정신 차려 만들틈이 없구나
 어리석은 무리들은 한 바보를 떠받들고
 고향질터 모두 같이 절을 하잔다
 도리어 순박하던 檀君시대의
 꾸밈없는 그 시절만 못하리로다”

「汲汲爲慕倣 未暇揀精工 衆愚捧一癡
 啗啖令共崇 未若檀君世 質朴有古風」²¹⁾

“.....

마귀처럼 흉한 모습 그 얼굴에 서렸건만
 그래도 제만에는 서시의 시늉이라네
 그가 살던 마을의 서쪽 서시는
 얼굴이 고왔기에 찌푸림도 고왔지만
 네 아무리 고와라고 찌푸림을 시늉내나
 도리어 네 타고난 바탕만도 못하구나

20) 全書 I, p. 79. <夏日對西>의 일부

21) 全書 I, p. 7 <述志二首>의 일부

아, 서시의 찌푸림을 흥내넘이여
그 어찌 너 동시 뿐이었으랴
나는 봤노라, 이 세상 하많은 시농의 찌푸림을

.....
제 각기 타고난 바탕이 다르거니
어찌하여 남만 따르고 나를 버리려는고”

「..... 九子魔母此降神 自言此法有所受
里閑西與西施隣 西施本好嘸亦好 汝輩不若守天真
吁嗟效嘸豈唯汝 我見世路多此嘸
天生體質各有分 胡爲殉物舍吾身」²²⁾

다음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아무데도 쓸모 없고,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庶民子弟의 自暴自棄에서 오는 타락상과 그와는 반대로 구태여 애써 노력 안해도 出世榮達이 보장되어 있는 閥閥權門 子弟의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
제가 이제 관리 일을 공부 했으니
.....

종신토록 호의호식 해 보렵니다
그 애비 하는 말 ‘원래 낮은 족속이라
循吏, 酷吏 너에겐 상관없는 일’
이 말 듣고 그 아들 발끈 노해서
책이랑 활이랑 던져버리고
저포놀이 강패놀이 마조놀이 축구놀이에
허랑하고 방탕해 재복되지 못하고
늙어선 촌구석에 묻혀 버리네”

「.....
兒今學吏事 終身壓梁肉 翁云汝族卑
不管循與酷 兒乃勃發怒 投書毀弓矰 樽蒲與江牌
馬弔將蹴毬 荒嬉不成材 老侍沈鄉曲」²³⁾

22) 題東施 效嘸圖의 일부

23) 前揭, <夏日對酒>의 일부

“客이 말하길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집은 하늘이 복 내린 집
 너의 官職 하늘이 정해 놓은 것
 淸官 要職은 골라 잡아 하는 데
 노력과 수고는 필요 없는 것
 글 읽는 일 매일같이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출세하는데
 편지 한 장 쓸줄 알면 걸로 족하니”

「客云汝勿憂 汝家天所福 汝爵天所定 淸要唯所欲
 不須枉勞苦 續文如課督 時來自好官 札翰斯爲足」²⁴⁾

이와 같은 第二世 靑年들의 타락은 社會의 腐敗와 不條理를 加速化하고 그 그늘에 呻吟하는 庶民들은 最後의 生存條件마저 박탈 당한 채, 天倫의 綱常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 「有兒」는 가난에 못 견딘 남편은 아내를 버렸고, 어머니는 자식을 버려, 孤兒男妹가 거리를 방황하는 참상을 읊은 것이다.

“.....
 날은 저물어 어두워 오고
 날아가던 새들도 깃을 찾건만
 두 아이 길에서 헤매는 모습
 집 잃고 더더에서 기웃거릴꼬
 다, 가없으라, 이 나라 백성들이여
 자기의 본성까지 잃게 되다니
 지아비는 그 아내 사랑 못하고
 어머니는 제 자식 자애치 못해
”

[.....
 日暮天黑 栖鳥群羣 二兒伶俜
 無門可闢 哀此下民 喪其天彝
 伉儷不愛 慈母不慈] ²⁵⁾

24) 上과 同

25) <有兒>의 일부

茶山 自身이 말했듯이, ‘蓋一毛一髮 無非病耳’로 封建王朝의 末弊는 너무나 넓고도 깊게 스며 있어, 어디서부터 革正의 손을 뻗어야 할지 참으로 茫然한 상태이고, 오히려 하늘이 원망스러울 경지이다.

茶山은 당시 名門豪班으로 소위 體制 속의 人物이면서도 가난하고 無力한 百姓편에 서서 그들의 慘狀을 어찌 이렇게 속속들이 파고 들어, 同情과 憐憫의 눈으로 날날이 暴露하고, 살살이 告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告發과 暴露는 한갓 譏刺나 誹謗이기보다 오직 救國愛民의 一念으로 改善革正의 理論(그 많은 論, 議, 策, 劄 등)으로 뒷받침 되어 있다는데서 그의 偉大性은 더욱 빛나고 우리에게 커다란 感銘을 던져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五. 結 語

茶山 丁若鏞의 文學, 특히 그의 詩는 그 量이나 思想性에 있어, 充分히 研究論議될 수 있는 對象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最近까지 그의 文學은 關心 밖에 있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理由는 그가 너무나 經世致用의 實學者로서의 名望이 높았던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그는 藝術로서의 文學의 價値를 크게 認定하지 않고 文學의 効用性, 教化性을 強調한 나머지, 表現形式보다 內容만을 강조한 嫌이 있다는 점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文學의 機能이, 原論적으로 말해서, 人心의 感發에 있다면, 茶山詩가 주는 獨特한 感動은 그 自体만으로도 훌륭한 價値를 지녔다 할 것이다. 그리고 漢文學의 淵源으로도 詩經精神을 이어받아 詩史를 써 詩聖으로 推仰된 杜甫와 社會諷刺詩로 이름높은 白居易의 詩가 價値롭고 훌륭하다는 것이 定評이라면 可謂 우리나라의 詩史를 남긴 茶山の 文學도 같은 뜻으로 높이 評價되어 마땅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혹, 茶山詩를 論함에 있어서,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純粹 抒情詩 理論을 내세워, 그의 詩文의 主題, 素材의 偏向性을 貶論하지

모르지만 원래 文學이 善한 人間精神의 所産이며, 知性의 불꽃같은 것으로 人間다운 삶을 志向하며, 그것을 讀者에게 切實하게 呼訴하여 人心을 感發할 수 있다면 한갓 內容素材를 떠나 末梢的 技巧主義에 빠진 소위 순수 서정시보다 그것이 한결 값진 것이라 할 것이다.²⁶⁾

특히 近者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바람직한 民族文學의 進路 문제에 있어서도²⁷⁾, 茶山의 文學論과 詩文은 우리에게 값진 示唆와 敎訓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茶山의 한결같은 所望은 바른 人間, 건전한 社會, 튼튼한 國家로 집약되며, 이러한 바램은 民族의 보편적인 課題이기 때문에 오늘 날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價値로 융납되는 것이다. 그리고 茶山의 이 所望은 예리한 現實把握과 투철한 歷史意識이라는 個人的 眼目에서 出發하여 民心의 所在를 명확하게 代辯하면서 한 時代의 汎社會的 理想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²⁸⁾

本稿에서는 그의 社會批判詩에만 焦點을 두었지만, 비교적 後期作品 중 많은 農歌 漁歌와 ‘打麥行’ 등에서 生産에 종사하는 農漁民의 哀歡을 民謠的 분위기 속에 現實肯定的으로 形像化한 作品까지를 아울러 고려한다면 茶山의 詩世界가 그렇게 圖式化된 硬直性으로만 특징지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도 感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茶山은 自己時代 文學의 올바른 方向을 分明히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作品活動은 스스로 制約과 限界性을 內包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즉, 그것은 小說時代에 小說을 극구 배격하고 一般民衆 하고는 인연이 없는 難避한 漢文으로 作品을 썼기 때문이다.²⁹⁾ 文學이 한갓 作家의 自己 感情이나 鬱憤의 카타르시스 이상의 意味를 지니려면 讀者를 豫상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폭넓은 讀者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26) 金容稷: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 三英社, 1977
‘序文’ 및 ‘民族文學의 建設問題’ 참조

27) 創作과 批評, 1978 가을: ‘내가 생각하는 民族文學, 토론 기록 등

28) 申東旭: 韓國抒情詩에 있어서 現實의 理解, 民族文化研究 10, p.153 참조

29)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丁若鏞’ 조

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著作이 當代에 印行廣布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그의 훌륭한 文學理論과 業績은 그 影響力과 波及效果에 있어 成功的이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당대 讀書官人들의 일반적인 通弊요 限界性으로서, 燕岩같이 革新的인 寫實主義 文學論을 主唱하고 그 理論에 충실한 作品을 남기기도 克服 못한 과제였으며³⁰⁾, 훨씬 後代에 梅泉野錄을 남긴 黃琬등도 이 迷夢을 깨닫지 못한 固定觀念이었던 것이다.

확실히 이 시기의 燕岩과 茶山 등의 文學에 대한 主張은 저 中國이 1919年 五四운동 後하여 내어진 胡適의 八不主義(文學改良芻議 1917)나 陳獨秀의 三大旗幟(文學革命論 1918)와 맞먹는 先進的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不避俗語俗字’라는 한 德目을 실천하지 못하여 言文一致의 文學을 건설하지 못함으로써,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現代文學을 위해서도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0) 拙稿：燕岩의 文學觀과 文章論，睡蓮語文論集 5，1977. 참조